

卞銀乃兩主」性聰比丘」一禪比丘」文益比丘」性嘗比丘」覺明比丘」孫介同兩主」鄭萬同兩主」李□世兩主」金順代兩主」比丘依巧」修天比丘」李革敏」銀春」金貴與兩主」刻鶴孫兩主」李永春」妍玉」景玉」去斐」比丘德林」鄭思良」尙岑」樂春」尹金伊」金龍」崔守平」金相金兩主」李永云」崔大俊兩主」小フ代保體」李植平」白忠立」郭于億兩主」李男兩主」朴福守兩主」元日」道假」榮立」印意」玉寶」海日」比丘戒雄」都彥守兩主」尹禮元兩主」信悟」信玉」德瓊」比丘信學」朴億文兩主」信悅比丘」印宗比丘」應林比丘」銀鋸保竹」金福守」林順祥」刻彥世」從月」萬惠比丘」李默兩主」釋允比丘」應海比丘」智海比丘」里香」宗隱比丘」李云兩主」戒寬比丘」懷悟比丘」德守比丘」敬禪比丘」夢代」徐冲敏兩主」語今單身」冲敏比丘」一玉比丘」妙淨比丘」弘賚比丘」智述比丘」秋鷹」悟今」性學比丘」金應祥」李台迥」宋仁寶」鄭德童」崔太白」李福只」趙香福」李應福」白莫仍」朴己男」李永生」玄旭比丘」法賚比丘」厚對」張香福」朴貴同」張德男」李應星」朱前億」梁繼立」孫得仁」金假春」魯假吉」姜益□」朴應先」趙應道」朴應時」安勝日」金日兩主」韓英立」金末叱山兩主」李仁兩主」遭岳兩主」朴從伊兩主」芥伊」崔尙元兩主」朴汪里兩主」信旭比丘」寶訓比丘」淡行比丘」玉禪比丘」宋台致兩主」法惠比丘」思罔比丘」自安比丘」百裕比丘」釋清比丘」信潮比丘」(以上下段)尾

(一九六四年秋 補修工事에서 發見)

(二) 溫陽 孟氏杏壇建物上 樑文(一九六四年十二月 補修工事에서 發見)

一、大廳宗道里 卍長舌墨書

「成化十八年壬寅十月初六日立柱上樑——以下不明——孟冬之月前坐巽向乾」(第一行)

「家主昭威將軍護軍孟碩俊——以下不明——改坐向立柱上樑后向癸移坐」(第二行)

二、大廳後側中道里墨書

「此乃吾孟 先祖文貞公舊宅初爲巽坐後改癸向成化壬寅護軍公重修 崇禎壬午八月二十八日霞谷公重修三甲戌宗孫學淳與三從弟鳳淳修理三己卯改

西南英八月二十八日鳳淳謹書

扁首韓奉心洪厚伊金光弼等六人

◎ 百濟鐵銼와 鐵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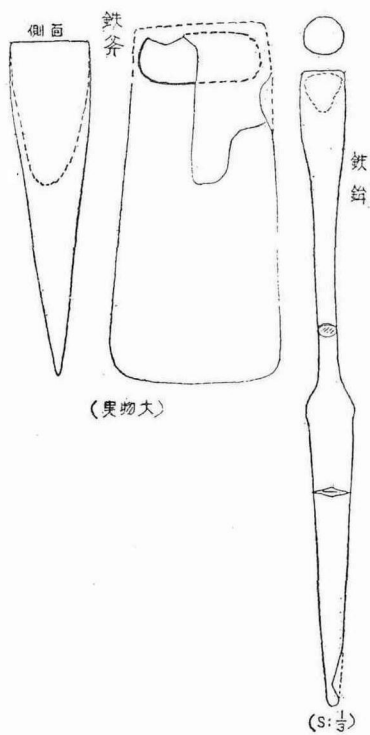
洪 思 俊

昨年十月二十日頃 石城山城附近의 砂防工事로 地表를 階段으로 만드는데서 出土된 百濟時代의 鐵銼와 鐵斧 二點이 發見되어 當時 石城面縣北里 臨江院址를 東大博物館에서 學術調査作業班에 가져와 黃壽永氏의 好意로 扶餘博物館에 寄贈되었다. 이 遺物出土가 百濟石城山城附近이란 것과 또는 現存 扶博에 陳列된 鐵製武器에 比하여 本적에 時代的으로 百濟遺物임을 推定하였다.

그 形態를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1, 鐵銼

刃部와 柄部를 合한 길이는 五〇cm로 刃部는 左右로 날이 있고 끝



이 銳利하게 되며(長二十四cm) 柄部는 자루를 맞추게 되었는데 刃部에서 漸次로 內孔되어져서 자루를 맞추는 구멍의 徑은一・七cm로 鉞의 자루(柄)도 比較的 가는것을 알겠고 使用에 輕便하게 만든것이다.

2、鐵斧
이 鐵斧도 鉞와 同時同所에서 出土되었는데 지금의 鐵斧와 비슷하다. 그러나 자루를 맞추곳이 刃部를 向하여 끼게됨이 다르다고 하겠다.

刃部幅 四・五cm 길이 九・七cm
以上 鐵製武具는 몹시 녹이 슬었고 部分的 損傷이 있음을 말하여둔다.

◎ 安東 造塔洞에서 發見된 金銅如來立像

安 承 一

一九六四年 十二月 十三日 十五時頃 安東郡 一直面 造塔洞山六의 一番地(俗稱 조탑동 뒷굴)에서 東方 一五〇m의 地點의 山巒에서 土地開墾作業을 하든 同洞居住 李東植氏에 依하여 出土된 銅製 塗金佛像은 다음과 같다.

一、크기(cm) 總高 二・五 身高 八・〇 肩幅 二・五 手間距離 三・五 座臺高 三・五

二、形態

가、佛像 頭上에는 肉髻가 도톰도톰하고 속인듯한 顔面은 기름하고 두 눈은 치켜져있고 兩 귀는 길게 어깨까지 내려왔으며 오른편 手은 위로 올려져 手 바닥을 펴고 왼편 手은 아래로 드리워 手 바닥을 펴고 있다. 通肩衣文은 좌우로 전개하면서 下腹部에서부터 膝部에 이르기까지 타원형의 衣紋線이 數個씩 形成된 가운데 띠의 수실이 가슴 아래 맺어져 있고 양편 장삼의 소매자락이 무릎까지 길게 늘어졌다. 양편 발은 맨발로서 발꾸락이 또렷 또렷하다.

나、座臺는 六角의 下臺上에 六角面을 두고 各面內에는 안상흔적이 있고 그 위에 中臺를 두고 佛體를 형성한다. 다음 佛體를 둔위에 蓮花形의 佛을 세운다음 양연대를 얹고 그 위에 佛상을 세웠다.
三、佛상은 발견시까지의 형태가 완전하였던 것을 발견 후 무지한 소치로 佛상의 양볼 밑 좌대 후면의 안상부 二면과 佛體대 등 손상을 가하였음.

四、조치 상황은 현재 안동군 교육청에서 인수하여 금고내에 보관중임.

◎ 望德寺址의 階段址

秦 弘 燮

新羅 五岳 調査團 一行이 八公山 踏査를 마치고 吐含山의 一部 調査를 爲하여 慶州에 到着했을때 慶州 在住의 尹京烈氏로부터 望德寺址 南方에 階段址로 보이는 一連의 石物이 露出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이곳을 調査한바 틀림없는 階段址로 推定되었다. 寺址 南端에는 幅約 一m餘의 佛도랑이 나있고 그 南쪽

